

2002년 현충일 특별집회 표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되시어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산출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 영이 삼일 하나님의 실재요
부활의 실재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을 사용하면
우리는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몸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 주제:

새로운 부흥—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하나님-사람의 삶을 삶

메시지 1

하나님-사람의 생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이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부흥

성경: 빌1:20하-21상, 롬12:4-5, 고전12:27, 계11:15, 합3:2상

I. 오늘날 주의 움직이심의 방향

- A. 과정을 거치시고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건축함—엡1:22-23.
- B.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이들과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예비함—3:29, 계22:17.
- C. 하나님의 경륜이 이뤄져 시행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위해 신성한 생명의 확산인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옴—막4:26-29.

II.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을 신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이다—롬12:4-5, 계21:2.

- A.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분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단체적인 삶을 살 것이다—고전12:12.
- B. 하나님의 경륜은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 안에 그분 자신을 역사해 넣으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엡3:16-19, 4:4-6.
- C.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되어 건축된,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을 얻기 위한 그분의 안배이다—16절.

III.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사람의 어떠함의 모범을 세우셨다—벧전2:21.

- A.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을 거절하시고 자신에 대해 죽으셨으며 아버지를 향해 사셨다—요5:30, 6:38, 57상, 8:28.
- B.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 의해 하셨다—4:34, 5:19, 6:38, 12:49-50, 14:10, 24.
- C. 주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의 인간 미덕들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셨다. 이것이 원형이신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삶이었다—9절.

IV. 주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 대한 원형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원형은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사람을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롬8:29, 벧전2:21.

- A. 원래 그러한 삶은 한 개인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제 이러한 삶

이 구속받고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1:18, 23, 요일5:11-12.

- B.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반복하는 삶이다—고후5:9, 히13:21, 요일3:22.
- C. 예수를 따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복사판이 되는 것이다—벧전2:21.
- D. 하나님—사람들인 우리는 신성하고도 비밀한 사람들로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모든 것은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요2:6, 3:1, 4:6상, 15, 17하.
- E. 회복 안에서 우리의 실행은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빌1:20하—21상.
 - 1. 하나님—사람은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을 그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결국 신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다—고후3:18.
 - 2. 하나님—사람 생활—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의 방식으로 함께 사는 생활—이 교회의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다. 그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요14:19하.

V.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살아 낸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결과이다—롬12:4-5, 8:4, 14.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들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는 온전케 된 하나님—사람들에 의한 단체적인 생활이다.
- B.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이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이는 몸 안에 사는 사람이 고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사람이다—엡1:5, 4:1-6.
- C. 하나님의 경륜을 참으로 실행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은 지방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기체가 되는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1:22-23.
 - 1. 우리는 반드시 지방 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4:16, 고전12:12, 27.
 - 2.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합일이요, 그분의 몸의 어떤 부분도 자치적일 수 없다—엡4:4.
- D. 우리가 몸을 보았다는 가장 강한 증거는 우리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롬12:4-5, 고전12:20.
- E.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몸을 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6절.
 - 1.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빌1:8.
 - 2. 우리가 머리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취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하는 원칙 안에서 취해야 한다—고전12:25, 롬12:15.
 - 3. 만약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범사에 머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몸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몸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의 규칙으로 취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삶은 완전히 몸의 생활이 될 것이다—2-3절, 고전14:26하.
- F. 주의 회복 안에는 오직 한 일—한 몸의 일—만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엡4:12.

VI. 새로운 부흥은 주님께서 이 시대를 끝내시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시는 수단이 될 것이다—합3:2상, 호6:2, 롬8:20-22.

- A. 주님께서 이 시대를 마감하지 않으신 이유는,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 안에 사는 이기는 이들의 무리가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는 수단이 되기를 그분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계2:7하, 11하, 17하, 26-27, 3:5, 12, 21.
- B.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생활—이 이 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게 하여 이러한 하나님—사람들과 함께 왕국 시대에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게 할 것이다—11:15, 20:6.